

3명구속
婦女子연쇄殺人관련 추궁

한열군 사인

다

평양화학

華城연쇄殺人 용의자 검거

【華城驛】京畿道華城郡(台安)읍일대 부녀자 연회장간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7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여부를 질문 추궁하고 있다.

주최해오던 살인마파 黃明호씨(20·忠南大原군成歡읍成歡리)를 검거, 台安사건과 관련

「내가 華城사건의 진범」이라 고 말했다는 동료 金正태씨(20·梅珠里)등의 자백을

경찰은 지난 1월 黃明호

받아내고 달아난 黃州를 추
적해 왔었다.

결찰한 지난 1월 이들이
安養에서 휴친 스텔라 송
차를 (安養 黃州지천변에서)
불러왔었다는 절영으로 미루
黃州가 이 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黃州는 지난 1월 28일 휴친
승용차로 서울과 京畿 忠南
지역을 누비며 도주 45회에
 걸쳐 부녀자를 폭행하고 5
 천 9백 53만여원 상당의 금품
을 빼앗아 탈의로 수배돼 왔
었다. 黃州는 그동안 고종사
촌인 忠北淸州市內德魯 金모
씨(25)집에 숨어있다가 6일
오후 2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公州 結婚 못해 비관하다 범행 자백

소모(忠南公州)주(浦)면(馬
岩) 주(浦)부인(婦) 연화(延花)살이간(間)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8
일 이사건의 범인姜昌求씨

(30·강진도동)전과4범(公
州市玉龍洞363 미장호)을
검거, 범행인체를 자백한을
살인 강도 등 혐의도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姜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리미(馬岩里)입대
의 중근(中根)3명뿐을 강간한
한 것이외에도 지난83년부터

85년까지公州市城門과反
浦面들에서 도라는 여인3
명을 강간살이었다고 자백했
다.

姜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華城 台安 正南걸쳐 : 모두 목줄려

지난 일을 하오(호)시게
台安 지사에서 2 km 가량 떨어진 大安黃鸝里 50 號에서 친견하였는데
병중속에 이마를 뿔고양(19.
「상고」3년)의 일의 재갈이 붙
리고 양손이 뒤로 꿰어채 목도
리로 묶여 출려 속쳐있는 것을
본다. 이를 구기던 이마를 최인주씨
(42)가 발견, 10월 28일 호 2
도 지난해 10월 28일 하오 2
시 50분경 화전경찰서에서 태안지
사에서 1 km 가량 떨어진 華城
郡(台安陳雅里)에서 노숙로
에 차모양(26)을 사신장(종)
이 옷이 벗겨진 채 목이 졸려
숨쳐있는 것을 이마를 꾸고있
나.

상으로 수사를 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여 세 번째 희

평생 스포츠 —

생자가 발생하자 지난 11일 위
설계(台安지사에 수사 본부를
늘키하고 호구조사와 반성회
를 통해 수사 협조 전달)와 친정
을 배포하는 한편 30여명의 도
경순찰계 수사 전담반을 투입했
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의 신원
을 확인, 소재수사를 펴고 있
【略】

【화성=배경록 기자】속보=화성 50대 여인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10일 유력한 용의자로 연행, 조사했던 김아무개(25·경기도 이천군)씨 등 20대 2명의 사건당일 행적이 뚜렷해짐에 따라 이들을 풀어줬다.

경찰은 숨진 안씨의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최근 마을 부근에서 여자를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 김아무개(22)씨를 또다른 용의자로 연행, 수사중이나 김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숨진 안씨의 가족

과 벗겨진 신발 등에서 범인의 지문채취에 실패해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와 복숭아 등에서 혈액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건당일 수원에서 발안행 시내버스를 타고 범행 추정시간인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재리 정류장 부근에서 사라진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이 노선 버스회사 운전기사, 안내양,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발생 3일이 지나도록 목격자나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연쇄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